

날짜 2025-01-19(D1)

본문 눅24:25-35

번호 2580

설교 변일국 목사

구분 주일예배

찬송 찬14, '주 우리 하나님'

시작 주님 가르치신 기도

찬송 찬14, '주 우리 하나님'

기도 권영희 사모

본문 눅24:25-35

설교 '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'

찬송 찬162, '부활하신 구세주'

봉헌 권영희 사모

광고

① 구국 기도에 힘쓰자

현 시국은 선과 악, 천국과 지옥의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좌, 우의 형태로 진행 중인, 그래서 그 결과는 나라의 국운,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, 그리고 주님의 새 교회가 시작되기 전, 이를 막고자 총력전을 펼치는 지옥하교의 전쟁입니다. 기도와 함께,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일에 동참합시다.

헌금기도

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
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(사58:10-11)

오, 주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,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

축도

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,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

오,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, 오늘은 2025년 1월 19일 주일, 본문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 세 번째 본문인 25절로 35절, 제목은 ‘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’였습니다.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된, 누가복음 마지막 장 엠마오 본문을 통해 주님은, 당시 저들이 의지하고 바랐던 참된 선지자 예수가 허무하게 십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실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의 그 이면에 숨은 참된 의미를 풀어 주신 후, 그 마지막을 주님 자신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시심으로 저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는, 그래서 저들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본문이었습니다.

오늘 새벽, 우리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, 수감되었습니다.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요,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대한민국 전 분야 곳곳에, 그리고 중책을 맡은 허리 부분에 좌파 사상으로 중무장한, 국가 전복 세력이 뿌리를 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. 이대로는 두 눈 멀쩡히 뜨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의 심정이 저들 엠마오 길 가던 두 제자의 심정과 같습니다. 오, 주님, 부디 저희에게도 오셔서 저희로 현 상황 그 이면의 숨은 뜻을 보게 하시고, 저희에게도 떡을 떼어주셔서 저희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제발 이 나라를 저들 손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!

간절히 기도하는, 이 자리 모인,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,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,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!